

Abstract

"What Are They Asking?":

Needs Analysis for the Corona Blue Youth in Korean Church

Prof. Dr. Hyunchul, Lee
(Faculty of Christia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demanded by Christian youth who have experienced Corona Blue in their faith and life, and to present basic direction for deriving church educational support and ministry plans for them. To this end, data from the Korean Church Youth Survey in COVID-19 of the Student For Christ(SFC) were used, and I selected and analyzed 300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Corona Blue from 1,75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le: 850, female: 903) attending churches/Christian youth living in 16 provinces nationwide (including Jeju and Ulleungdo). As an analysis method, the needs of the Borich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were applied and analyzed, and through this, the needs of Christian youth in church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is study, Christian youth have priority demands in five areas: reading the bible, participating in bible study, praying for God, worship participation(Offline), and worship participation(Online). Based on the results, I proposed ministry directions for Corona Blue Christian youth in Korean Church.

Key words: Korean Church, Youth, COVID-19, Corona Blue, Church Education, Ministry Strategy

일반논문

나실인의 규례(민 6:1-21)

신득일(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초록]

나실인의 서약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도 마치 제사장과 같은 금기 사항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보완된 직분적 제도이다. 나실인의 율법은 서원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헌신하도록 규정한다. 사무엘과 삼손은 나실인이지만 이 서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들은 평생 자신을 드리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 나실인 제도는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나실인이 지키는 세 가지 금기 사항을 지키는 것은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부패한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면서 그 나라가 이상적인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서원의 메시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격려한다.

주제어: 나실인, 서약(서원), 포도주, 부정, 머리(털),

1. 서론

나실인의 규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친숙한 내용이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고대의 제도는 현대인에게는 이상한 관행으로 여겨지지만 구약시대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게 여겨진다. 마치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 같은 이 제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서약이 되는가라는 질문도 생긴다. 본고에서는 나실인의 기원과 성격, 실행 등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본문주석을 통해서 이 서원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1. 정경의 상태

비평가들은 나실인의 서원이 하나의 독자적인 문헌으로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다양한 전승이 결합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이 규정을 포로 후기의 문헌으로 보고 두 전승이 결합되어 수정되었다고 본다. 즉 나실인이 카리스마적이고 종신이었던 것이 한시적인 서약이 되었다고 한다.¹ 전체적으로 제사(민 9-12; 레 12-14)와 제사장의 역할(민 10-11, 16-17, 19-20)을 비중 있게 언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레위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금기사항과 관련해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제일 이른 요소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레갑의 영향으로 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부정을 면하는 것은 '성결법'(레 21:10-15)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늦은 것으로 본다.² 여기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규정은 가장 이른 본문에 속한다는 드

보라의 노래에서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실인의 전사'가 언급되었다는 것이다(삿 5:2).³ 삼손이나 사무엘의 경우도 카리스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의 나실인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서원의 규정과는 무관한 자들인데 이 직분이 본인의 서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 비평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이 전체 주장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은 왜 예루살렘 제사장 그룹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정을 광야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작성해서 민수기에 배치했는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는 어머니가 대신 서약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자신의 서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경우가 아니라 서약의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나실인은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이 있는 한시적인 성격을 지녔는데 거기서 특별한 상황의 긴급성 때문에 종신 나실인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⁴

1.2. 본문의 상태

마소라 본문(BHS)은 전체적으로 원래의 내용을 별 문제 없이 잘 전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2절, *yafli* (히필)은 레위기 27:2의 모음표기를 따랐지만 레 22:1, 민 15:3은 피엘로 모음부호를 붙였다. 의미는 똑같이 '(서원을) 이행하다'가 된다.

1. J. de Vaulx, *Les Nombres* (Sources Bibliques, Paris: J. Gabalda et C^{ie} Éditeurs, 1972), 102.

2. Cf. Phillip J. Budd, *Numbers*, vol. 5, WBC (Dallas: Word, Incorporated, 1984), 70-71.

3.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1), 467.

4. A. Noordtzij, *Het boek Numeri*, Korte Verklaring (Kampen: Kok, 1941), 83.

명사 *nāzīr*는 칠십인역, 시리아역, 탈굼에서 ‘정화하다’는 의미로 번역했다.

5절, *nēḏer*는 8절과 비교할 때 중복표기로 보인다.

13절, BHS는 *yābī* (히필)을 *yalō*로 읽으라고 하지만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본문의 문제가 아니고 번역문제이다.

14절, 수사 *’eḥād* (하나)는 *keḇeś* (어린 숫양) 다음에 오는 것이 수식관계가 명확해질 것이다.

21절, *nizrō* (그의 서약)는 4절에 의하면 *nidrō*로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셈어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특히 히브리어 z는 아람어에서 d로 읽는다.

1.3. 본문의 개요 및 분류

나실인의 규례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규례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주어졌다. 나실인은 개인이 제사장과 같은 금기사항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사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실인의 규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나실인은 삼손과 사무엘의 삶과 관계가 있고(삿 13, 16; 삼상 1:11) 선지자 아모스는 이 서약을 궤방하는 것을 종교적 타락으로 지적했다(암 2:11-12). 또한 신약에서도 나실인의 서약에 대한 암시가 나타난다(눅 1:15; 행 18:18; 21:23-24).

나실인의 규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기록되었다. 이 규정을 고려할 때 나실인의 대표처럼 여겨지는 삼손과 사무엘은 본문의 규정과 상관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나실인의 특징은 지녔지만 그 규정과는 달리 본인이 서원하지 않았고, 종신토록 나실인으로 섬겼기 때문이

다.⁵ 이 규정은 레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금기사항을 지키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제사장과 같은 규율을 지키면서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인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 본문은 주제를 따라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다.

1. 나실인의 기원과 성격(민 6:1-2)
2. 나실인의 임무(6:3-8)
3. 나실인의 규정을 범할 경우(6:9-12)
4. 나실인의 법(6:13-21)

2. 본문: 주석적 설명

2.1. 나실인의 기원과 성격(민 6:1-2)

나실인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초두부터 명시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6:1-2). 이 구절은 나실인의 기원을 보여준다.

5. 한(Hahn)은 나실인은 제사장에 가깝지만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에 가깝지만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에 가깝지만 사사도 아니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나실인이라고 불린 적이 없다고 한다. Christine Hahn, “The Understanding of the Nazirite Vow,” in *A God of Faithfulness: Essays in Honour of J. Gordon McConville on His 60th Birthday*, ed.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Lhbots), 538, ed. by J. McConville and others (New York; London: T & T Clark, 2011), 60.

여러 학자들이 이 제도를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근동의 관습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하지만 나실인의 기원은 어떤 문화권의 영향에서 설명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⁶ 또 포도나무의 소산을 금하는 내용이 가나안 정착의 환경을 거부하는 것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⁷ 그러나 포도를 재배하는 환경은 가나안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고대로부터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창 40:9-11).⁸ 이 제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헌신을 위해서 여호와와의 규례로 주어진 것이다.

본문에 '나실'(나지르)이란 말의 의미를 알려주는 설명이 없는 것은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원래 '나실'이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관습을 따라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⁹ 이 특별한 관습을 두고 부르띠엔(Boertien)은 "나실인 제도는 '성전'에 참여하는 전사들을 봉헌하는 의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전'의 특징이 변해서 나실인 제도는 예언자와 제사장적 요소에 흡수되었다"고 했다.¹⁰ 그러나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해서 그런 전투적, 군사적 성격에 대한 증거를 주지 않는다. 물론 그

6. 스펜서(Spencer)와 미카엘리스(J. D. Michaelis)와 같은 학자들은 나실인의 규례가 이집트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 Cf. W. H. Gispen, *Numeri I*,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Kok, 1959), 105.

7. Budd, *Numbers*, 74. 아이히로트(Eichrodt)는 나실인 제도가 이스라엘 국가가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기여를 했다고 함으로써 그 기원이 가나안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한다. Walther Eichrodt,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Leipzig: J.C. Hinrichs, 1933), 160.

8. 이집트인들은 처음부터 포도주를 마셨지만 포도주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제2왕조 때의 것이다. 이집트의 고대문헌에는 "포도주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과 죽은 자를 위한 제물, 음료, 공물로 자주 언급되고, 가끔 약의 성분으로 언급되었다." A. Lucas and John Harris, *Ancient Egyptian Materials and Industries* (London: E. Arnold, 1962), 16.

9. Ernst Jenni and Claus Westerman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7), 727.

10. H. M. Ohmann, *Tellingen in de woestijn* (Bedum: Scholma Druk, 1983), 38.

뒤에 나실인이 전쟁에 연루된 경우는 추정할 수는 있다. 그것은 사무엘과 삼손의 사역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에 나타난 헌신된 자들과 관련된다(삿 5:2). 그렇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육신에 대항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실인의 헌신에 군사적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전투가 될 것이다.

조건법(casuistic law)으로 제시된 이 서원의 규정은 '남자나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비레위인이나 비제사장계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자도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남편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만일 그 여자가 미혼이라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그 서약을 지켜야 한다(민 30:3-7).¹¹ 여성의 나실인 서약이 일반화된 것은 제2성전시대에 '여나실인'(nezirah)이라는 전문용어가 쓰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¹² 한 유대전승은 아비아베네(Abiabene)의 여왕 헬레나(Helene)가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칠 년을 나실인으로 섬기겠다고 서원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이십일 년을 나실인으로 살았다고 한다(Mishina, Nazir 3:6). 유대전통은 나실인의 서원 기간을 보통 삼십 일로 정했다(Mishina, Nazir 1:3).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을 때(출 19:6) 레위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여자들도 나실인의 서원을 함으로써 마치

11. 이 관점에서 한나가 아니라 엘가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렸다고 한다. Joshua Backon, "Prooftext that Elkanah rather than Hannah consecrated Samuel as a Nazirite," *Jewish Bible Quarterly* 42/1 (2014), 52-53.

12. Jacob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44.

제사장과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만인제사장'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인제사장이란 개념은 종교 개혁 시대에 비로소 발견된 것이 아니고 광야시대에 주어진 나실인 규정에 서 이미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것은 자유로 결정할 일이지만 일단 서원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들의 서원은 특별하고 분명한 것이다. 히브리어 동사 팔라는 원래 기적과 같은 일을 의미하지만 맹세와 관련해서 히필형으로 '명백하게 서원하다'란 뜻으로 쓰인다(레 27:2). 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은 '여호와께 자신을 봉헌하다'로 번역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이란 표현이 금기사항마다 나타난다(6:4-6). 여기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이라 표현은 '그의 봉헌'(나즈르)으로 번역해야 한다. 즉 '자신을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뜻이다. 이 표현의 강조점은 나실인의 서원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이 특이한 헌신을 평생 동안 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셨다. 이 서원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성격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나 삼손이 나실인으로 활동한 것이 나실인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이런 나실인의 한시적인 성격 때문에 카트리지(Cartledge)는 나실인의 서원은 이타적인 조건 없는 헌신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응답받는 기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조건적인 약속일 것이라고 생각한다.¹³ 그러나 그것은 유대전승에서 볼 수 있는 백성의 관행이지 본문에 나타난 나실인의 취지에서 그런 요소를 확인할 수 없다. 만약 나실인의 서원의 정신이 이기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고 헌신을 빙자한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합법적

13. Tony Cartledge, *Vows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47 (Sheffield: JSOT Press, c1992), 23.

인 규정이 될 것이다.

나실인의 서원이 강조하는 것은 자발성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사무엘이나 삼손이 나실인이 된 것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서원을 하는 사람에게 평생 그 서약에 매이도록 하는 과도한 짐을 부과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나실인에게 금욕주의적 삶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나실인의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온 마음으로 그 서약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현대인을 위한 이 율법의 의미는 "구약 나실인 제도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값진 임무를 상기시킨다"는 것이다(롬 12:1; 벰전 2:9, 10; 계 1:6).¹⁴

2.2. 나실인의 임무(6:3-8)

1)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소산과 독주를 삼가야 한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6:3-4). 나실인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음주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자세가 술에 취해 있다면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은 영적인 무장해제가 된 상태를 말한다. 그 상태에서는 성도가 모든 종류의 악에 노출되어서 세상과 죄성을 지닌 육신에 대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을 경고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충고한 것은 술에 취하지 않고 눈을 뜨고 경계하

14. Gispén, *Numeri* I, 107.

는 상태를 말한다(벰전 5:8). 나실인은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포도나무 산물은 어떤 형태든 금해야 했다. 이것은 포도주에 대한 유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포도주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그것이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표를 사용하셨다.¹⁵

특별히 나실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어떤 형태의 열매든지 금한 규정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엄격하다.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했다(레 10:9-11).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 동안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금지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일상생활을 떠나서 은둔생활을 한다든지 금욕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¹⁶ 이 규정이 수도원생활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나실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성숙한 성도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허락하신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전 5:19).

2) 나실인은 삭도를 그 머리에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6:5).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은 나실인이 항상 외적으로 자신의 헌신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표시이다. 이 규정은 술을 권하는 자리에서 거절함으로써 자신이 나실인이 된 것을 알리는 것과는 달리 머리로서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5. Ohmann, *Tellingen in de woestijn*, 40.

16. 한 논문은 시리아 기독교의 금욕적인 이상이 나실인에 대한 해석에서 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Jason Scully, “The Exaltation of Seth and Nazirite Asceticism in the Cave of Treasures,” *Vigiliae Christianae* 68/3 (2014), 310-328.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머리와 관련된 이교도의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 가끔 그것은 슬픔을 표하는 의식과 관련된다. 다른 경우는 머리를 깎아서 드리는 ‘머리 제사’같은 것도 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머리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력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실인은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의 무성한 머리를 보여주어야 했다.¹⁷ 또 머리가 자라도록 두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의 표시이기도 하다. 노에는 머리를 밀어야 하고, 또 머리를 미는 것은 이방인의 관습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미는 것이 금지되었다(신 14:1).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단순한 표현은 칼로써 머리를 손질하는 삭발, 단발, 변발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두발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나실인의 규정도 제사장의 규례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들도 머리를 깎을 때 주의해야 했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레 19:27). 이것은 나실인이 제사장 차원의 금기규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실례가 된다.

3)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6:6). 본문에서 ‘~을 가까이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보 알은* ‘~로 들어가다’란 말로서 ‘~에 이르다’란 뜻이다. 이어서 ‘더럽히지 말라’(로 잇타파)는 명령이 나온다. 이 말은 내용적으로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더럽다’는 말은 다른 본문에서 ‘부정하다’고 번역되었다(레 11:24). 이 더러움이나 부정은 현대인이 이해하는 비위생적인 개념이 아니

17. Noordtzij, *Het boek Numeri*, 79.

라 인간학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오히려 한국에서 ‘부정한 일로 인해서 해를 당한다’란 뜻을 가진 ‘부정탄다’는 말이 훨씬 더 가깝게 여겨진다. 물론 이것은 온 우주의 기운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움’이나 ‘부정’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적으로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물리적으로 주검은 부패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은 주검과는 정반대다. 하나님의 임재와 육신의 부패 간에는 일치점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은 그분의 것이다. 다른 신들은 죽음에 속하고 부패를 전염시킨다.”¹⁸ 이런 차원에서 이 주검을 접촉하는 것은 산 사람이 죽음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다는 말이다.

나실인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서원한 기간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예외가 있다. 즉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부모, 자녀, 형제, 시집가지 않은 자매는 가까이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레 21:11). 나실인은 비록 그 주검이 자기 부모 형제자매와 관련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6:9). 이 점에 있어서 나실인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동등한 수준의 규율을 지켜야 했다. 그런데 나실인이 한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동안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당할 때 이 규정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머리를 깎는 관습이 있었고, 그렇게 애도를 표하는 내용도 소개 되었다(렘 7:29; 욥 1:20). 애도의 상황에서 그렇게 머리를 밀려는 유혹이 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

18. Mary Douglas, *In the Wilderness: The Doctrine of Defilement in the Book of Number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58 (Sheffield: JSOT Press, 1993), 34.

다’(6:7)고 하는지를 설명해준다.¹⁹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다(6:8). 그가 거룩한 것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고, 또 그에게 적용된 금지사항이 제사장과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다(출 29:44; 30:30).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나실인은 실제적인 사역은 하지 않는데 그것이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그러나 그가 세 가지를 금하는 자체가 중요하다. 즉 나실인의 침묵의 증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만연된 타락과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키듯이 나실인을 일으키셨다(암 2:11).²⁰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 헌신의 효력을 무효화시켰다(암 2:12).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포도주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히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가나안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실인의 삶 자체가 이런 관행에 반대하는 살아있는 항거의 표시였다.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을 섬길 때 면도를 하고 몸의 털을 밀어야 했다.²¹ 나실인의 삶은 이런 이교도의 관행에 저항하는 침묵의 증언이다.

19. T. Ashley, *The Book of Number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3), 143.

20. 드 보(De Vaux)는 ‘나실인을 일으켰다’는 말은 서원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개인의 서원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De Vaux, *Ancient Israel*, 467.

21. James Bennett Pritchard (ed),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with Suppl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339.

2.3. 나실인의 규정을 범할 경우(6:9-12)

나실인의 서원을 한 자가 지켜야 할 것은 절제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헌신이 가정생활과 격리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의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또는 ‘순식간에’(פּתא פּיטום) 가족 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기치 않은 가족의 죽음으로 전혀 고의성이 없이 주검을 접촉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도 자신이 봉헌한 머리를 더럽힌다고 한다(6:9; 레 5:14-16). 즉 책임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로쉬 니즈로는 ‘그의 봉헌된 머리(털)’라고 번역한다.²² 나실인이 주검을 접촉한다면 손이나 다른 신체의 부분이 사용될 텐데 본문은 머리(털)를 더럽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나실인이 자신을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사망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고 속박한다(시 18:4-6; 116:3; 호 13:14). 나실인이 죽음의 영향을 받으면 생명을 드리는 나실인의 헌신은 무효로 돌아간다. 더러워진 상태에서 자신의 서원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칠일 내에 그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영예로운 신분을 잃을 것이다(9절). 그러나 속죄를 통해서 생명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주어졌다. 이것은 나실인의 생활과 그의 몸을 통하여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롬 5:12).

부정하게 된 나실인은 네 단계의 조치를 통해서 회복된다. 첫째, 몸을 정결케 하는 칠 일째 머리를 민다(레 14:9). 부정하게 된 것을 제거하는 절차로 보인다. 부정한 머리털이 다른 것도 오염시킨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유대전

22. Ludwig Koehler et al.,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1994-2000), 684.

승은 이때 잘린 머리털은 땅에 묻었다고 한다(M. Temurah 7:4 A). 둘째, 여덟째 날에 자신의 죄를 속해야 했다(6:10).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문으로 가져가야 했다. 그 제물은 가장 값싼 것이다(레 5:7; 12:8). 이때 제사장은 제물 하나로 속죄 제물로, 다른 한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서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한다(6:11).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나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²³ 셋째, 그 날에 머리를 성결하게 한다. 그런데 ‘거룩하게 할 것이라’(קִדְּשׁוּ, 피엘, 완료형 와우 계속법, 삼인칭, 남성, 단수)의 주어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서원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의미는 제사장이 정결하게 된 서원자의 머리를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²⁴ 이것은 재서원을 위한 절차이다. 넷째, 서원할 날짜를 새로 정하고 일 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제물에 대한 규정은 다르지만 부지중에 성물을 더럽히고 속하는 절차와 같다(레 5:14-16). 이 속건제는 거룩한 물건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자신의 거룩한 맹세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다.²⁵ 나실인은 이 절차를 통해서 지나간 헌신은 무효화되지만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 절차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23. 중세 유대인 주석가 베코르 쇼르(Bekhor Shor)는 “바른 의미에서 이것은 죄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제사이다. 그의 부정은 그가 맹세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Michael Carasik (ed), *Numbers: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rans. Michael Carasik, First edition, *The Commentators' Bible* (Philadelphia, P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1), 6:11.

24. Noordtzi, *Numeri*, 80.

25. Ashley, *The Book of Numbers*, 145.

2.4. 나실인의 법(6:13-21)

이 나실인의 법(חֻקֵי הַנָּשִׂים, 토라트 하나지르)은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기간, 즉 규정된 맹세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행하는 의식과 절차를 보여준다.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라는 개역개정은 애매한 번역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문자적으로 “그는 그것을 회막문으로 가져갈지니라”로 번역된다.²⁶ 어쨌든 그 나실인은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회막문으로 가야 한다. 그가 회막문으로 가야 할 이유는 헌신할 동안 무성하게 자란 머리를 다른 곳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밀어야 하기 때문이다(6:18).

나실인은 서약으로 헌신된 기간을 종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소제물과 전제물을 동반한 세 가지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는 세 마리의 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실인의 대가와 거룩함을 상기시킨다. 그는 번제물로 일 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린다(6:14). 그는 레위기 1장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서 짐승을 잡고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단에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실인으로서 헌신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속죄제물로는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를 드린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을 위한 규정과 같다(레 4:32-35). 이 제사는 나실인이 서약을 한 기간 동안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희생을 의미한다.

화목제와 그와 관련된 소제와 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고 지

26. KJV, NKJV, NIV, ESV: “he shall be brought unto the door of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or meeting).” 개역판: “그를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NASB: “그가 회막문으로 제물을 가져갈 것이요.” 히브리어 본문은 능동(히필형)으로 되었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같이 수동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6:17). 화목제 제물은 동물밖에 없다. 그런데 제물로 수양에다 무교병 한 광주리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은 하나님을 섬겨서 자신을 드리는데 더 많은 헌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제와 전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지만 민수기 15장에 의하면 수양일 경우 고운 가루 십 분의 일 에바에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준비하라고 한다(민 15:6). 나실인은 제사장이 화목제물을 준비한 후 회막문에서 나실인의 머리를 밀고 그 머리를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운다(6:18). 물론 그 위치는 번제단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머리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제사가 될 수 없다.²⁷ 나실인의 서약을 마치고 머리털을 태우는 것은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머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마치 남은 제물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불사르는 것과 유사하다(레 7:17; 민 19:6). 화목제의 마지막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화목제 제물을 나누는 것이다(6:19-20). 일반적으로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여기서 수양의 어깨와 무교병과 무교전병도 각각 하나씩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그 전에 제사장은 가슴은 여호와 앞에서 좌우로 흔들고, 넓적다리는 상하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치른다. 여기서 이 행위는 나실인이 특정한 기간 동안 거룩한 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돌보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이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는 선언은 하나님과 백성의 화목을 상징하는 교제의 식사부터 적용될 것이다. 나실인이 자신의 서원의 임무를 벗어난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포도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²⁸

27. 그레이는 머리털을 태우는 것을 제사의 종류로 본다. George B. Gray,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03), 68.

28. Gispén, *Numeri* I, 116.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구절은 13절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것이 나실인의 법이다.' 앞에서 나실인의 임무를 마치는 규정으로 제시된 것은 최소한의 임무라고 한다: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더 많은 서원을 했다면 더 많은 것으로 서원을 지켜야 할 것이다(민 30:3; 신 23:22).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다함이 없는 것이다.

3. 결론

본문은 나실인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고 이 서원의 기원은 고대근동 문화권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계시이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직분의 불공정한 부분을 보완하여 레위인이거나 제사장이 아니라도 대제사장의 수준에 버금가는 금기사항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자다. 이 제도의 특징은 남녀구분 없이 자발적인 헌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나실인의 역할은 세 가지 금지사항을 지키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 자체가 부패한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는 중요한 사역이 된다.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된 새 언약의 성도는 옛 언약 시대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지만, 이 제도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합당하게 자신을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값진 헌신을 하도록 일깨운다(롬 12:1-2).

참고문헌

- Ashley, T. *The Book of Numbers*, NICOT.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3.
- Backon, Joshua. "Proof-text that Elkanah rather than Hannah consecrated Samuel as a Nazirite." *Jewish Bible Quarterly* 42/1 (2014): 52-53
- Budd, Phillip J. *Numbers*. WBC. Dallas: Word, Incorporated, 1984.
- Carasik, Michael (ed). *Numbers: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rans. Michael Carasik, First edition, The Commentators' Bible,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1.
- Cartledge, Tony. *Vows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47. Sheffield: JSOT Press, 1992.
- Douglas, Mary. *In the Wilderness: The Doctrine of Defilement in the Book of Number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58. Sheffield: JSOT Press, 1993.
- Eichrodt, Walthe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Leipzig: J.C. Hinrichs, 1933.
- Gispén, W. H. *Numeri I*.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Kok, 1959.
- Gray, George B.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03.
- Hahn, Christine, "The Understanding of the Nazirite Vow." In *A God of Faithfulness: Essays in Honour of J. Gordon McConville on His 60th Birthday*,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Lhbots), 538. Edited by J. McConville et als. New York; London: T & T Clark, 2011: 46-60.
- Jenni Ernst and Claus Westerman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 Koehler Ludwig et al..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J. Brill, 1994-2000.

- Lucas A., and John Harris. *Ancient Egyptian Materials and Industries*, London: E. Arnold, 1962.
- Milgrom, Jacob.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Noordtzi, A. *Het boek Numeri*. Korte Verklaring, Kampen: Kok, 1941.
- Ohmann, H. M. *Tellingen in de woestijn*. Bedum: Scholma Druk, 1983.
- Pritchard, James Bennett (ed).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with Suppl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Scully, Jason. "The Exaltation of Seth and Nazirite Asceticism in the Cave of Treasures." *Vigiliae Christianae* 68/3 (2014): 310-28.
- Vaulx, J. de. *Les Nombres*. Paris: J. Gabalda et Cie Éditeurs, 1972.
- Vaux, Roland de.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1.

Abstract

An Exegesis of the Nazirite Vow (Num 6:1-21)

Prof. Dr. Duke Shin
(Faculty of Theology)

The Nazirite vow is a supplementary official system that allows people who are not Levites or priests to serve God while obeying the same taboos as priests. This law stipulates temporary devotion through vows. Samuel and Samson are Nazirites, but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vow, and they should be seen as exceptional cases of lifelong Nazirites. The Nazirite system serves to make Israel a true priestly nation. Observing the three taboos of the Nazirite is in keeping with God's attribute of holy life, and serves to warn corrupt Israel and help the nation maintain an ideal community of faith. The message of this vow encourages us to live a life of voluntarily giving ourselves to God.

Key words: Nazirite, oath(vow), wine, defilement, hair